

永川 菁堤碑의 丙辰銘

李 基 白

一、머리말

永川 菁堤碑가 新羅三山調查團에 의하여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이 一九六八年 一二月의 일이나 이미 二年的 歲月이 흘러간 셈이다. 筆者는 이것을 學界에 소개할 책임을 위촉받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貞元銘에 대한 것만을 정리했었을 뿐, 이제껏 丙辰銘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었다. 그 理由는 오직 筆者의 능력이 모자란 데 있었던 것으로서 늘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오던 것이다. 다시 한번 菁堤碑를 찾아보았으면 하는 希望도 없지 않았으나 결국 그리할 겨를도 없이, 第二次調査時의 새 拓本을 방에 걸어놓고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한 결과를 土臺로 이 미흡한 紹介를 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碑文의 判讀이 어려운 데에 있다. 現在와 같은 判讀 狀況 속에서 碑文을 통한 歷史的 考察을 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해야겠다. 따라서 本考는 원래의 희망과는 달리 주로 文字의 判讀에 치우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이러한 判讀의 困難은 文字의 磨滅에도 말미암은 것이긴 하지만 또하나 新羅史 전반에 대한 識見의 不足에도 큰 理由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다 높은 識見을 가지고 본다면 반드시 보다 나은 判讀이 可能하리라고 믿는다. 이 조잡한 考察은 그러므로 보다 나은 理解에 도달하기 위한 버림들의 구실이나 하기를 바랄 뿐이다.

二、碑文의 內容

우선 全文 一〇行, 各行 九字 내지 一二字로 새겨진 丙辰銘을 현재

알 수 있는 대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2 3 4 5 6 7 8 9 10 11 12
 1 丙辰年二月八日△△△△大

2 塢△△△△鄧九十二△△

3 廣△△△△△△將上三將作人

4 七千人△二百八十方

5 使△△△尺△△大舍第

6 △△小舍第述利大鳥第

7 △△小鳥未△小鳥一支

8 △△人△△利乃利△△△

9 使△△人只珍巴伊即刀

10 衆△△村只△△△△干支△△利

우선 ①는 建碑의 年月日인 것이다. 丙辰年이란 干支만이 있고 그 絶對年代가 없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年代의 推定은 다음 章에서 다시 言及할 예정이다.

⑤는 工事의 名稱인데 第一行 第八·九·一〇字가 地名일 것으로 생각되나 잘 알 수가 없다. 이어 「大塢」라는 文字가 나오고 있다. 塢는 中國에서는 戰鬪의 防禦用 堤防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나, 여기서는 灌溉用 貯水池 堤防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貞元十四年銘에 이것이 「菁堤」라고 밝혀져 있고 現在까지도 仍用되고 있음에 비추어서 無理가 없을 것으로 안다. 中國의 用語를 빌리면서도 그 뜻을 다르게 사용하는 예는 흔히 있는 일이다.

③는 「塢」字 밑의 文字들이 不分明하기 때문에 명확히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잘 모르겠다. 「鄧」字가 燈 혹은 嶺의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닌가 싶은 점이라든가, 또 「廣」字가 나타나는 것이라든가로 보아 이 부분은 工事의 規模를 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九十二」나 「三」나 하

는 數字들이 보이는 것도 그러한 때문인듯 싶으나 그 數字들이 어느 정도 것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內容은 분명하지 않다. 不分明한 文字들 중에서 第二行 第四字는 「卒」 혹은 「平」字로 읽음직도 하고, 第四字와 第五字 사이에는 또 하나 「一」字가 있는 듯도 하다. 第二行的 第一〇字 第一一字와 第三行的 第四字와 第五字는 計量의 單位를 나타내는 同一한 單語인듯하나 잘 모르겠다.

㉔는 動員된 人員을 말하고 있다. 「將上」의 「將」字는 분명치 않으나 뒤의 「將作人」에 비추어 대개 틀림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將上과 將作人이란 動員된 人員을 표시하는 用語와 그 數字를 알 수 있는 것은 多幸이다. 그리고 第三行的 第六字는 한 字로 읽어두었으나 二字일 가능성이 있고, 그 二字 중 밑엿자가 「八」字와도 같아서 혹은 이 工事に 參與한 別記 八名의 人物을 가리킨 것이나 아닐까 하는 疑問도 있다는 것을 添言하여 둔다.

㉕는 그 첫 字가 「利」인 것도 같고, 字形上으로는 뜻이 不分明한대로 「劄」같이도 보인다. 또 마지막 字는 우선 「方」으로 읽었으나 「万」으로 읽을 가능성도 있다. 여하튼 二八〇方이란 것이 面積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部分은 貯水池나 蒙利土地의 面積을 표시하는 것으로 보아서 좋을 듯한 데 後者일 가능성이 크다. 만일 이것이 蒙利面積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康熙二十七年(肅宗一四年, 一六八八)의 菁堤重立碑에 「此堤灌漑三百餘石」이라고 하였으니, 時代에 따라서 生産額에 差異가 있는대로 한번 比較해서 考察해 볼직한 일이 아닐까 한다.

以上이 全體의 前半을 構成하고 있다. 이 碑文의 作者 자신도 그렇게 文段을 끊고 싶었던 것임을 第四行 밑에 아직 餘白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行을 바꾸어 第五行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실로서도 알 수가 있다. 여하튼 여기까지에서 本碑의 主文이 끝나고 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다음 第五行부터는 이 工事に 參與한 代表的인 人物들의 人名을 列記하고 있을 뿐이다.

㉖에 나타난 人物들을 一覽表로 작성하여 제시하면 別表와 같다. 現在로서는 이러한 一覽表를 작성한다는 것이 無理인 것을 筆者 자신이

잘 알고 있으나 우선 대담한대로 이런 試案을 제시하는 것이 다음의 考察을 위하여 하나의 발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만들어 보기로 하였다.

職任		人名		官等	
使	△△△尺	△	△	大舍第	
△	△△△尺	△	△	小舍第	
△	△△△尺	述	利	大烏第	
△	△△△尺	未	支	小烏	
△	△△△尺	一	支	小烏	
△	△△△尺	尔利乃利	支	小烏	
△	△△△尺	只珍巴伊	支	小烏	
衆	△△△尺	△	尔利	只△△△干支	
△	△△△尺	△	尔利	只△△△干支	
△	△△△尺	△	尔利	只△△△干支	

먼저 第五行的 「使△△△尺」五字 중 第二字가 「人」이 아닌가도 싶기 때문에 이것을 「使人」과 「△△尺」으로 兩分할 가능성도 있으나, 「人」字도 미심스럽고 하여 우선 이를 하나로 잡았다. 또 第三字는 「喙」같이 도하여 部名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나 역시 미심스럽다. 이에 속한 三人은 모두 大舍·小舍·大烏등 京位 끝에 「第」字가 붙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마 앞서 ㉔에 나온 「將上」三人이 바로 이들일 것이다. 第는 知와 같은 뜻으로 大舍第·小舍第·大烏第는 곧 大舍知·小舍知·大烏知가 아닐까 한다. ㉔. 여하튼 이러한 表記法은 여기서 처음으로 아는데 혹은 言語學的인 면에서 새 資料를 제공해주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 三名에 한해서 「第」字가 붙어있는 것은 그들이 특히 尊待되고 있는 대문일 것이다.

다음 第七行은 잘 알 수 없는 部分의 하나이다. 第二字는 「人」인 것 같기도 하여 처음의 二字를 職任으로 보아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第三·四字 및 第七·八字가 小烏여서 京位가 되므로 第五·六字 및 第

九·一〇字는 人名으로 다룰 수 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人名과 京位를 적는 順序가 위의 것과는 달리되어 있어서 不安하게 된다. 혹은 第七行과 第八行을 연속된 것으로 보려고도 努力하였으나 可能性이 없다. 대체로 이 ①에서는 한 行이 끝날 때마다 人名이 매듭지어지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第六行의 경우와 같이 다른 行 보다 밑으로 처져있기도 하고 또 第七行의 경우와 같이 다른 行에 比하여 한 字 더 쓸 수 있는 餘白을 남기면서도 이로써 매듭 짓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原則을 念頭에 두고 생각할 때에 가장 可能性이 많은 것이 上記 一覽表의 경우라고 할 수 밖에 없었다.

第八行과 第九行도 잘 모르는 部分이다. 第八行의 처음 四字와 第九行의 처음 二字를 職任으로 보았으나, 第八行의 경우는 「△人」의 二字만이 職任일 可能性도 있다. 第九行은 「使△人」으로 읽었으나 第二字는 「作」인 듯도 싶고, 第三字 「人」은 「尺」인 듯도 싶다. 第九行의 「只弥巴伊」가 「기돌복이」로 읽히는 人名일 것임이 확실하다 ②. 또 第八行의 마지막 三字 「△丁△」와 第九行의 마지막 三字 「卽刀」를 官位로 처리하는 것은 이들이 現在 우리가 알고 있는 京位의 어느 것에도 쉽게 맞지 않음을 것 같아 어리둥절하게 되지만, 「尔利乃利」나 「只弥巴伊」가 人名인 것이 확실하므로, 이들을 일단 京位로 처리하고 後考를 기다리기로 한다.

끝의 第一〇行에는 처음에 「衆△村」이라는 村名이 나온다. 이것을 職任欄에 넣은 것은 便宜에 따른 것이지만 지금껏 王京人이었던 것에 대해서 ③ 처음으로 村에 居住하는 人物이 나오는 셈이다. 衆△村은 이 塙가 築造되던 곳의 村일 것이다. 이 경우에도 第七行의 경우와 같이 人名과 官位의 順序가 뒤바뀐 것으로 생각하여 一覽表에 그렇게 처리한 까닭은 「利」가 人名의 末字에 흔히 나오며 「干支」는 官位의 끝에 흔히 붙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새로운 外位名을 대하게 되는 셈이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알 수가 없다.

三、築堤와 建碑

앞서 本靑堤碑의 貞元銘을 소개하는 중에 五·六世紀의 新羅에서 稻作이 급속히 발전하고 이에 따라서 水利事業에 대한 關心이 커졌다는 사실을 根據로 해서 靑堤의 첫 築造도 이때에 해당되며 이 사실을 적는 것이 本 丙辰銘이라고 말한 일이 있다 ④. 그런데 新羅에서 農業生産技術이 발전한 것은 五·六世紀에 限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다른 時期에 該當시켜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서는 다른 角度에서 보다 자세한 考察이 필요할 것 같다.

이 年代를 해결하는 데서 문제가 되는 것은 丙辰이라는 干支에 의한 年代表記法인 것이다. 新羅 統一以後의 金石文은 대개 年號가 나오고 이 어 干支가 표시되고 있다. 甘山寺의 두 造像記, 上院寺鐘銘, 奉德寺鐘銘, 葛項寺石塔記, 防禦山石刻 등등 年代表示가 남아있는 金石文이 모두 그렇다. 그러나 三國時代로 올라가면 다만 干支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原則이다. 南山新城碑나 大邱塙作碑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약간의 例外가 있어서 眞興王巡狩碑에는 新羅의 太昌이란 年號가 나오고 있는데 國王의 巡狩碑라 그럼직도 하다고 생각된다. 또 統一後의 것인 癸酉銘三尊千佛碑像 같은 것은 干支만이 표시되어 있으나 이것들은 統一直後에 王京에서 멀리 처진 地方의 것이고 보면 역시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原則적으로 年號의 有無를 기준으로 絕對年代表를 統一前後로 가를 수 있는 것으로 믿는다. 여기서 막연히 統一前後라고 하였으나 실은 좀더 정확한 線을 그을 수 있음직하다. 즉 唐의 年號를 쓰기 시작하던 眞德王五年(六一一)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眞德王五年 以前の 丙辰年으로서 可能한 年代는 眞平王一八年(五九六)과 法興王三年(五三〇)이다. 그 以前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두 丙辰年 중에서 筆者는 앞서 法興王三年(五三六)으로 推定한 바 있다 ⑤. 그러면 그보다 五年前에 내린 法興王의 堤防修理命令과 직접 관계를 지어볼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人名의 列記에 있

어서 일정한 秩序가 없는 점, 京位에 「第」字가 붙는 특이한 점, 그리고 部名이 적어도 전부에는 나타나지 않는 점 등, 아직 新羅의 制度가 제대로 자리잡히기 이전의 소박한 모습을 나타내주는 점과도 符合한다. 그러면 이것이 現存하는 新羅 最古의 金石文이 되겠는데 法興王代에 王京 아닌 永川地方에서 이러한 金石文이 만들어질 可能性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疑問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疑問이 있는대로 우선 法興王二三年(五三六)으로 推定해두고 後考를 期하고자 한다. 그러나 비록 年代를 늦추어서 眞平王一八年(五九六)으로 잡더라도 六世紀의 新羅가 水利施設에 대한 必要性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과 연결시킬 수는 있는 일이다.

四、碑文에 나타난 新羅의 社會

이 丙辰銘은 직접적으로는 六世紀 新羅의 水利事業과 관련된 것이나, 그런 면에서 지금껏 忘却되어 왔다고 할 수 있는 六世紀 新羅의 農業을 理解하는데 중요한 구체적 資料를 제공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法興王一八年(五三一)의 堤防 修理에 관한 王命도 生命을 가지게 된 것이다. 한편 이 碑文은 築堤過程에서 생기는 여러 節次에 관한 記事를 갖고 있으므로 해서 附隨的으로 新羅 社會의 몇가지 側面에 대한 理解를 돕고 있다.

우선 이 碑文에는 築堤에 있어서의 中央權力의 作用에 대한 몇가지 示唆가 있다. 위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築堤의 工事責任者로 八名의 人員이 나타나 있다. 그중 七名까지가 王京人으로 생각되었고 나머지 一名이 當該村에 居住하는 地方豪族이었다. 이것은 大邱塢作碑의 경우 에 京位를 가진 사람은 두 僧侶에 지나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外位를 가진 村의 土着勢力家였던 것과는 큰 差異가 있다. 南山新城碑에서 조차도 王京人이 動員된 경우를 除外하고는 역시 村의 勢力家들이 多量이 責任者로 動員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특이한 점은 아마 切也火郡(永川)의 地方行政上의 특수한 位置와 관련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切也火郡은 본래 독립된 骨火國이 併

합된 뒤에 설치된 것이었다. 그런데 骨火山은 新羅의 名山大川에 대한 祭祀에서 最高의 地位를 차지하는 三山의 하나로 되어 있었고, 그 山神은 新羅를 지키는 護國의 女神으로 받아들여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王京인 金城과 隣接해 있는 切也火郡은 新羅의 支配集團인 王京人和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다. 비록 그 구체적인 것을 잘 알 수는 없고, 따라서 막연한 이야기이긴 하나, 그러한 관계가 이 築堤에도 나타나 있는게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注目되는 것은 將上과 將作人이다. 將上은 三名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이를 下半部에 列記된 八名의 人名 중 처음 三名에 該當시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言及한 바와 같다. 이들은 모두 京位의 마지막 字가 「第」로 끝나는 共通點을 지니고 있었다. 위에서 第는 知와 같은 뜻일 것이라고 추측해 보았으나 그렇다면 뒤의 小鳥에도 붙어서 마땅한 이일인데 그렇지 않다. 따라서 이 「第」字를 붙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가 분명해지면 新羅 政治制度의 가려진 一面이 나타나는게 아닌가 하지만, 現在의 筆者로서는 미처 理解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여튼 將上이 工事의 總責任者였던 것은 분명하며, 그 指揮下에 將作人 七、〇〇〇名이 動員되었다. 將作이란 말은 中國에서 秦 以來로 사용되었으며, 土木工事を 맡은 官府를 일컬고 있었다. 韓國에서는 高麗 때 처음으로 將作監이 나타나고 新羅에서는 官府名에 將作이라는 用語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미 新羅 때부터 工事に 動員된 人員을 將作人이라고 불러왔던 것임을 알 수 있다. 將上은 아마 「將作人의 上」이란 뜻이었을 것이다. 다만 不幸하게도 將作人 七、〇〇〇名이란 勞動力이 어디로부터 差出된 것인지 이 碑文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

끝으로 二月八日이라는 月일에 대하여 몇마디 言及해두고자 한다. 같은 善堤碑의 貞元銘에 의하면 善堤의 修治는 二月一二日에 시작해서 四月一三日에 完了되었다. 그리고 建碑의 月日은 四月一三日로 되어 있다. 이로써 보면 이 丙辰銘의 경우도 二月八일에 完了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新羅에서는 大規模의 工事を 위한 勞力動員이 대개 二月에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우선 貞元一四年

의 靑堤의 修治가 그러했다. 그리고 南山新城의 경우는 現在 남아있는 年月日이 記入된 三碑가 모두 二月二六日로 되어있는데, 이미 秦弘燮교수가 考證한 바와 같이 그것은 工事を 시작할 日字인 것이다⑥. 같은 日字에 모든 區域에서 工事が 完城되었다고 보기보다는 工事が 시작된 同一한 日字에 같은 內容의 誓約과 擔當區域이 割當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大邱塢作碑에 있어서는 四月一日에 만들고 碑를 세운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碑文대로 完成日字로 본다면 工事を 시작한 것이 二月頃이었다고 보아서 無難할 것이 아닌가 한다.

또 三國史記에 나타난 記錄들을 調査해본 결과 工事に 관한 記錄이 七七件이 있었는데⑦ 그중 一八件이 一月에 있는 걸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전체의 三二%에 해당되는 것이다. 게다가 正月이 六件, 三月이 九件, 春이 一件으로서 이를 모두 합치면 四四件이 되는데 이는 전체의 五七%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많은 七月이 一三件이고 같은 秋月인 八月에 七件, 九月에 五件, 秋에 一件으로 모두 합치면 二六件이 된다. 四·五·六月의 夏月은 합쳐서 겨우 三件, 一〇·一一·一二月的 冬月도 합하여 겨우 四件이다. 그러므로 工事は 春秋에 집중되어 있고 중에서도 二月과 七月이 단연 많은데 특히 二月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年代가 밀이로 내려오면서 秋月의 점점 增加되어가고 있는 것이 注目되는데 아마 이것이 高麗에서 秋役軍과 같이 秋月에 動員되는 先例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여튼 二月을 중심으로 한 春月은 新羅에서 가장 工事が 잦고 따라서 勞力動員이 많은 時期였다. 그러므로 靑堤의 경우에도 二月八日은 工事を 시작한 日字로 보고자 한다. 혹은 七月에 시작하여 二月에 完成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意見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간에 秋收期와 冬節이 끼게 되므로 不可能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二月을 중심으로 한 春月과 七月을 비롯한 秋月에 工事が 집중되고 있는 理由는 冬節을 避하는 따위의 氣候관계도 있기는 하였으나 무엇보다도 이 때가 農閑期여서 農民을 動員하기가 쉬운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만 時代가 뒤지면서 점점 秋月로 옮겨지는 까닭은 지금 딱히 모르겠으나

나 필시 農業技術面의 發展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점도 장차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사실일 것이다.

五、맺는 말

처음에서도 말하였던 것과 같이 碑文의 判讀이 어려웠던 관계로 해서 불충분한 紹介에 그치고 많은 疑問點을 남겨놓게 되었다. 그러나 아마 다른 眼目으로 살펴보면 좀더 判讀이 가능한 것들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또 現在 判讀된 것들 가지고서도 새로운 資料가 제공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있다. 그 밖의 方面에서도 새로운 資料가 제공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 것들이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새로운 研究에 맡길 수 밖에 없다.

史料가 稀貴한 古代史에서 새로운 소거되는 金石文이 주는 도움이 크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五·六世紀 및 九世紀에 新羅에 있어서 水利事業이 발달한 데에 따르는 永川靑堤碑의 兩碑文을 대하고 느끼는 것은, 적어도 水利事業에 관련된 上記 兩時期의 金石文이 틀림없이 더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四基가 발견되고 있는 南山新城碑 같은은 원래 二〇〇餘基가 있었을 것이라 고 추측되고 있다⑧. 이렇게 생각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金石文들이 아직 햇빛을 못보고 있는 셈이 되는데, 이것은 南山新城碑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築堤碑에 있어서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새로운 發見의 可能性에 대한 인식은 우리의 關心을 그 방면으로 더 많이 쏟아야 한다는 結論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註一、Karlgren은 西紀六〇〇年頃の 第의 音韻表¹⁾로 知를 tie로 復原하여 兩者가 서로 通用될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다. (Bernhard Karlgren, *Grammata Serica Recensa*, Stockholm, 1957 參照).

二、新羅時代에 바가 福·卜·伏등과 함께 童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흔히 人名에 붙었다는데 대하여는 李基文「新羅語의 福(童)에 대하여」국어국문학 四九·五〇合併號, (一九七〇) 參照.

三、第八行과 第九行의 人物들은 官等이 不明하기는 하지만 城(혹은 郡)이나 村이라고 읽을만한 文字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王京人이었다고 생각해서 좋다.

四、拙稿「永川靑堤碑 貞元銘의 考察」(考古美術 一〇二, 一九六九) 七面
五、拙稿 同上 七面.

六、秦弘燮「南山新城碑의 綜合的 考察」(歷史學報 二六, 一九六五) 三七—三八面.

七、但 完成된 日字를 記錄한 것과 年만이 있고 月의 표시가 없는 것은 工事を 시작한 달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統計에서 除外하였다.

八、秦弘燮 上記論文 四一面.